



하나금융그룹 VIP 고객 초청

## 조영남&남진 SHOW

하나금융그룹은 11월 25~26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조영남&남진 SHOW'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VIP 고객 1,700여 명을 초청해 겨울밤과 잘 어울리는 뜨거운 감동의 스토리를 선사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김동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고객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11월 25~26일 양일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감동과 향수를 선사할 국민가수 조영남과 남진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번 음악회에는 매회 860여 명, 총 1700여 명의 고객이 초청됐으며, 함영주 KEB하나은행을 비롯하여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등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객들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힘찬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객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말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그룹으로 가는데 초석이 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겨울밤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음

악회는 탄탄한 실력과 연륜을 자랑하는 가수 조영남과 남진이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화재장터'의 조영남, '님과 함께' '빈잔' 등 100여 곡이 넘는 히트송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원한 오빠' 남진은 각자의 히트곡 열창은 물론 색다른 하모니의 무대를 연출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비브라폰 재즈밴드 '굿펠리스'의 축하 공연도 함께했다. 영롱한 음색의 비브라폰이 함께하는 굿펠리스의 재즈 공연은 겨울밤의 분위기에 맞게 고객들의 감성을 따뜻하게 데워줬다. 하나금융그룹은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고객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행복 만찬'을 준비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디너는 클래식한 공간에서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코스 요리와 파티세의 디저트,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인 어우러져 고객들의 미각과 감



성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특히 고객들이 만찬을 즐기는 동안 하프양상블 듀엣 공연이 펼쳐져 한층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송년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KEB하나은행 포토월을 마련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즐기는 송년파티가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그룹 VIP 초청음악회는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12년에는 민해경, 남궁옥분, 이문세 등 7080 스타들이, 2013년에는 이은결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장윤정, 신승훈이 메인 무대를 연출했다. 2014년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가수 바다와 이승환 등 최고의 스타들이 명품 공연을 펼쳐 하나금융그룹 VIP 초청음악회의 명성을 이어왔다. 하나금융그룹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들께 뜨거운 감동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

KEB하나은행 VIP 고객 초청

## 고대 불교 조각 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작고 정교한 불상부터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까지, 종교를 떠나 불상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지난 10월 28~29, 11월 11일 3일간 KEB하나은행은 VIP 고객들을 모시고 '고대 불교 조각 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전시를 관람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인도, 중국 등 7개국의 210여 개 불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초기의 불교는 부처의 유골을 중요하게 여겨 부처를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지 않았다. 부처의 죽음(열반) 뒤 400여 년 동안 불상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다가 1세기 무렵, 인도의 간다라와 마투라 지방에서 부처를 숭배하는 마음을 담아 인간 형상의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아래 독자적으로 불상을 창안했기 때문에 불상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다. 초기의 불상은 정수리를 높이거나, 손에 물갈퀴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부처의 높은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인도의 불교문화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다. 세 나라가 처음 불상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인도의 불상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후 각 나라의 불교 미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나라별 특성이 담긴 불상이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은 작품성도 뛰어나 불교계뿐만 아니라 미술사에 길이 남을 작품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두 점의 금동반가사유상(국보 78호·83호)의 실물을 관람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VIP 고객들은 불교문화와 불상의 변천사를 보며 종교가 가진 신비로운 힘과 예술적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관람 내내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문화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전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보다 다양한 행사를 선보여 일류은행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월 28~29, 11월 11일 3일간 VIP 고객들을 모시고 '고대 불교 조각 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신비로운 불교문화의 가치와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글 윤정아 기자 사진 김동욱 기자

